

김용관 작가 서거 12주년 기념 앵콜쇼

기린미술관 기획초대전

1월 한달간 연장 운영

기린미술관에서는 김용관 작가 서거 12주년 기념전을 1월 1일부터 한달간 열고 있다. 이번 15회 김용관 서거 12주년 기념 앵콜쇼에서는 14회의 작품중에서 소품들을 교체해 전시하게 된다. 이번 앵콜쇼는 관람객들의 전시기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1달간을 연장하여 초대전을 갖는다.

김용관 작가의 부인 박여희 여사는 어렵게 생활을 꾸려가면서도 집안의 콘테이너에 300여점의 김작가 작품들을 보관하고 습도나 온도를 유지 관리해 왔다.

이번 유작전에는 대작 200호, 300호, 400호 등을 포함하여 62점을 먼저 선보인다. 김 작가의 생애를 초기, 중기, 후기 즉 나이로 보면 주로 30대, 40대, 50대 작품으로 나누어, 기린미술관 1, 2, 3관 전관에서 대작들의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김 작가의 그림 명제가 생성, 소멸, 존재, 자연 등이 주제인 것은 자연의 일반 법칙을



김용관 작가 작품

평면화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생명의 순환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코드로 작용한다. 생성과 소멸 등 자연의 순환법칙은 그의 그림의 소재로 작용하며 회화적 상상력을 퍼 올리는 근원이며 원동력이다.

때로는 화면에 부유하면서 유동적이며 함축적인 조형이 주를 이루면서 긴장과 화해, 불안과 균형, 분열과 통합, 초월과 내재, 혹은 깊은 공허와 승화의 변증법적 양상을 띠고 있다.

이현옥 기린미술관장은 “작품속에서 대칭적 균형감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각가 문신의 3차원적 작품적 이미지와 비슷하게 생성과 소멸 및 존재를 평면적 작품에 옮겨 놓는 듯하다”고 말했다.

김 작가의 일련의 작업 과정을 요약하면 부재하는 그 무엇과 비가시적인 삶을 암시하는 어떤 의미와 내용을 함축한 묵시적인 추상으로 작업을 마무리한다. 김용관작가는 비가시적인 삶을 다양하게 표현한 묵시적인 언어주의자라고 평가받고 있다.



김용관 작가 서거 12주년 기념 앵콜쇼 포스터

김용관 작가는 1954년 2월9일에 태어나 1981년 원광대학교 미술교육과를 졸업하고 2013년 5월에 간암으로 유명을 달리했으며 부인 박여희 여사와 1남 1녀가 있다.

김 작가는 제14회 개인전(기린미술관, 전주, 2024), 전북위상전(교동아트센터, 2011), 한·일 미술교류전(전북, 가고시마 2003-2006), 원광미술의 오늘전(태국, 2002),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개관기념 초대전(한국소리문화의 전당, 2001)등 많은 단체전에 참여했다. /김재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과 업무협약

(제)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이하 진흥원)과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이하 서대문공단)은 지난 14일 오후 3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양 기관의 공동 발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상호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여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및 사회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진흥원의 다양한 콘텐츠와 서대문공단의 문화자원 및 인프라의 상호 결합을 진행하고, 나아가 공동 사업 발굴·기획을 위해 노력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단계적인 협력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진흥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 및 디지털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며, 전북 글로벌게임센터,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전북 레드콘 음악창작소 등을 운영 관리하고 있다.

진흥원 김성규 원장은 “서대문공단과의 협력은 전북 콘텐츠 산업의 저변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매우 뜻깊은 시도”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콘텐츠 사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앙리 마티스 레플리카전’ 군산서 열린다 제28회 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대전 개최

군산예술의전당서 3월 2일까지 진행

군산예술의전당은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20세기 현대미술의 대표주자라 불리는 앙리 마티스의 초기작부터 말년까지 작품을 한자리에 만나 볼 수 있는 레플리카전을 16일부터 3월 2일(매주 월요일 정기휴관)까지 2~3전시실에서 운영 할 예정이다.

프랑스 화가 앙리 마티스는 아수주의의 창시자로 강렬한 색채와 형태를 표현하며 회화, 조각, 그래픽아트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작품활동을 펼친 예술가로 담대한 색채, 유려한 움직임, 특유의 표현방식으로 파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로 명성을 드높혔다.

이번 전시에는 그의 일대기를 <모방과 습득>, <아수파-오달리스크>, <페이퍼 컷 아웃>, <JAZZ BOOK>으로 47지 이야기로 나눠 시각적 예술의 혁명적 발전을 이끈 발자취를 한눈에 관람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앙리 마티스의 명화를 나만의 색채로 꾸며보는 컬러링 체험과 앙리 마티스의 말년 작품으로 유명한 색종이 폴라주를 활용한 컷 앤드 프로그램을 전시 체험으로 준비했다.

전시를 보다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전시 설명(도슨트)프로그램도 운영된다. 11시, 14시,



15시, 16시 총 4회 진행되며 설 명절 기간(1/27 정기휴관으로 제외)도 운영해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도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색채의 마술사 앙리 마티스 레플리카전’은 무료로 진행되며, 오전 단체관람의 경우 사전 예약(454-5530)을 통해 접수하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옷칠 목공예품 · 같이 공예품 2분야... 4월 4-6일 출품 접수

남원시와 남원목공예협회가 ‘제28회 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대전’을 개최한다.

28회째를 맞이하는 ‘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대전’은 남원시가 주최하고, 남원목공예협회가 주관한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전북특별자치도·남원시의회가 후원하는 옷칠분야 최고 권위의 공모전으로, 매년 전국의 많은 공예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특히 일상 생활용품을 옷칠로 디자인한 작품들이 늘어나는 등 신진작가의 등용문이 되고 있다.

이에 남원시는 전통 옷칠 목공예의 기능을 계승·발전시키고 뛰어난 옷칠 목공예 작가를 발굴,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개최되는 본 대전에 역량 있는 작가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으며, 접수 대상은 옷칠 목공예품·같이 공예품 2분야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접수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4월 4일부터 6일까지 남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출품 원서를 내려받아 작품과 함께 남원시청 강당(남원시 시청로 60) 또는 서울 남원장학숙(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봉로23길 13-6)에 출품하면 된다.

시상은 총 37점으로 상장과 함께 상금 총 1억 3,000만원(대상 3,000만원)을 수여하며, 시상식은 제95회 춘향제 기간 중 남원 안숙선명창의 여정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자는 오는 4월 16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며, 이후 수상자는 남원(안숙선명창의 여정, 5월 2일~5월 6일) 전시회를 시작으로 전주 한옥마을(공예품전시관, 5월 27일~6월 1일), 서울 코엑스(공예트렌드페어, 12월 중) 등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옷칠 목공예대전을 통해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공예인들에게 역량 발휘와 작품을 전국에 선보일 기회를 제공하고, 옷칠 목공예 산업의 진흥을 위한 발전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남원시는 그동안 개최된 대전을 통해 귀속된 수상작 137점을 보유, 이를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다채로운 볼거리 제공하고 옷칠목공예의 관광자원화 연계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국내 유일의 특화된 상설 전시관인 ‘남원 옷칠 목공예 전시관’을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우진청년작가회 정기전 ‘푸른 꿈’展

우진청년작가회 정기전 ‘푸른 꿈’展이 16일부터 오는 2월 12일까지 3주간 우진문화공간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에 따르면 이번 신년기획전에는 강현덕, 김성민, 김수진, 김용수, 박지은, 박천복, 배병희, 이은경, 이일순, 이철규, 임택준, 장영애, 장우석, 조현동, 한정무, 홍경준, 홍경태, 황나영 등 우진청년작가회 18명의 작가가 참여해 40여 점의 전시될 예정이다.

특히 2025년은 을사년으로 푸른 뱀띠 해로써 푸른 뱀은 새로움과 희망을 상징하며, 뱀이 갖고 있는 지혜와 변화의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종단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뿔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